

사무엘하 19. '전쟁의 종결과 다윗의 환궁' (삼하 19 장 1-43 절)

들어가기

지난 시간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를 벌였고, 이 전투에서 '압살롬'은 도망 중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매달린 후, '요압'의 부하들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며 반란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큰 실의에 빠졌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온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리어 전쟁의 승리가 슬픔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때 '요압'은 '다윗'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여 민심을 수습할 것을 권하였고, 그의 충언으로 '다윗'은 다시금 마음을 회복하여 민심을 수습한 후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하였습니다.

1. '다윗'을 위한 '요압'의 충언 (1-8 절)

1)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실의에 빠진 '다윗'의 모습은 자신을 따르던 온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1-3 절)

- ✧ 아들을 잃은 아버지 '다윗'의 입장으로는 그의 슬픔이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을 것!
 -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이기 이전에 온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음.
 - 더군다나 '압살롬'은 온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을 준 장본인이었음!

✧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다스리며,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내전으로 인해 큰 슬픔과 고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야만 했음! -> 그러나 '다윗'은 자기 감정에만 너무 깊이 빠져 있었음!!!

- ✧ 다시금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됨!
 - 지도자가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너무 과도하고 깊게 자기 문제에 빠지게 되면 공동체를 돌아볼 수 없음을 깨닫고 항상 평정심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할 것.

2) 이때 '요압'은 '압살롬'을 향한 지나친 '다윗'의 슬픔은 결국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사들을 육보이는 행동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5-7 절)

- ✧ 6 절,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3) '다윗'은 '요압'의 충고를 받고 일어난 뒤, 성문에 앉았습니다. (8 절)

- ✧ '성문'은 이스라엘 문화에선 공식적인 집회나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였고, 종종 이스라엘의 왕들은 성문에 나아가 백성들이 자신을 만나 간청할 수 있도록 접견을 허락하였음. (삼상 9:18, 암 5:10,12)

✧ 곧 '다윗'이 성문에 나아가 앉았다는 것은 그가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여 그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집무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함.

- ✧ 잠언 27 장 6 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총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 ‘요압’의 총언은 분명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충고였을 것이나, 이는 ‘다윗’으로 하여금 실의에 찬 마음을 빨리 추스르고 민심을 바로잡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2. 이때 ‘다윗’은 즉시 환궁을 결정하지 않고 민심을 수습하며 환궁을 준비하였습니다. (9-15 절)

1) 그럼 왜 ‘다윗’은 즉시 환궁하지 않고, ‘마하나님’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

- ✧ 학자들의 의견
 - 이번 전쟁은 결국 자기 집안에서 벌어진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기에 스스로 자숙하며 백성들의 반응을 참고 기다렸다는 것.
- ✧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변론하며 왕을 다시 모셔갈 것을 논의함!
 - 벰전 5:6,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2) 백성들의 여론을 확인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령을 보내어 유다 장로들이 앞장서서 자신의 환궁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11-15 절)

✧ Why?

3) 이때 ‘다윗’은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한 새로운 군대장관으로 임명함!

- ✧ 참고: ‘아마사’는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조카였고, 특별히 그는 ‘압살롬’의 군대 지휘자였음. (삼하 17:25)
- ✧ 그럼 왜 ‘다윗’은 ‘아마사’를 새 군대장관으로 임명했을까?

3.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천명과 ‘사울’의 종 ‘시바’와 함께 나와 ‘다윗’을 맞이하였습니다. (16-23 절)

1) ‘시므이’는 자신이 제일 먼저 달려 나와 왕을 맞이한다며 ‘다윗’을 저주한 일에 대해 용서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19-20 절)

✧ 이때 주목할 것 두 가지

- ①. 이때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 나왔다는 것!
 - 이는 당시 ‘시므이’가 나름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
 - 그는 시대 상황을 남보다 빨리 읽는 인간적인 지혜(처세술)을 가졌던 자!
- ②. 이때 ‘사울’의 종 ‘시바’가 그의 자식들과 모든 종들을 데리고 같이 나왔다는 것!
 - ‘므비보셋’에 대한 거짓말이 탈로나 ‘다윗’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처세술에 능한 ‘시므이’를 따라 나왔을 것!

2) 이때 ‘다윗’의 충신 ‘아비새’는 ‘시므이’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1 절)
 ‘…, 시므이가 여호와와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3) 그러나 ‘다윗’은 자신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2-23 절)

- ☆ 여기서 주목할 것! -> ‘다윗’은 결코 ‘시므이’의 죄를 용서한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
 - 곧 그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자신이 죽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것!
 - 이후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죽이라고 유언함! (열왕기상 2 장 8 절)
 - 학자들 = 이는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치졸한 복수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

4. ‘다윗’이 환궁할 때,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다윗’을 영접하였습니다. (24-30 절)

1) ‘므비보셋’은 진심으로 ‘다윗’을 걱정하며, ‘다윗’이 무사히 환궁하길 기다렸습니다.

- ☆ 근거 = ‘다윗’이 떠난 날부터 그의 발을 가꾸지 않고, 수영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음!
 - 이는 그가 극심한 애도의 맘으로 ‘다윗’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음을 의미함.

2) ‘므비보셋’은 자신을 향한 ‘시바’의 거짓 모함을 고발한 후,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다윗’이 바른 처분을 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 ☆ 그러자 ‘다윗’은 ‘므비보셋’의 무죄를 인정한 후, ‘시바’에게 발의 반을 나눠줄 것을 명함!

3) 그럼 ‘다윗’은 왜 ‘시바’가 ‘므비보셋’을 모함한 것을 알면서도 죄를 묻지 않고 ‘므비보셋’의 발의 반을 ‘시바’에게 나눠주게 하였을까?

- ☆ 화해와 화합의 시기임을 생각!
 - > 특별히 좀 전에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의 죄를 묻지 않고 살려줄 것을 결정한 ‘다윗’이 ‘므비보셋’을 모함했다고 ‘시바’를 벌하기는 형편성에서 맞지 않았다는 것.

- ☆ 이미 왕으로써 자신이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
- ☆ 율법에 따르면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없었기 때문

4)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중요한 것! -> 이런 ‘다윗’의 결정에 대한 ‘므비보셋’의 반응!!
 ☆ 30 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 ☆ 곧 그는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이나, 재물을 보전하는 일이나, 명예를 회복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이요, 진정한 충신이었다는 것!

5.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다윗’을 전송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31-40 절)

- 1) ‘바르실래’는 누구?
 - ✧ 당시 나이는 80 세였고, 길르앗의 큰 부자였음.
 - ✧ 그는 ‘다윗’이 피난 길에 올랐을 때,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풍부한 원조를 제공함.

- 2) ‘다윗’은 그의 공을 크게 인정하여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청했습니다.
 - ✧ 그러나 ‘바르실래’는 ‘다윗’의 청을 정중하게 거절함!
 - ✧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그리고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
 -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는가?
 - 좋고 흉한 것도 분간할 수 없고, 음식의 맛도 알 수 없고, 노래 소리도 잘 알아듣지 못함.
 - 그러므로 오히려 왕께 누를 끼칠 수 있을 것!
 - 따라서 자신은 고향 땅에서 부모 곁에 묻히길 바란다고 고백 -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

- 3) 대신 그는 자신의 아들 ‘김함’이 자신을 대신해 왕께 충성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 ✧ 그는 진실로 재물을 바르게 쓸 줄도 알았고, 시대와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줄도 알았고, 자신의 위치와 한계도 바로 알았던 사람이고, 권력이나 명예에도 흔들림 없이,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길을 열어 줄 줄 알았던 참으로 지혜롭고 경건한 노인이었음!!!

- 4) ‘다윗’은 이런 ‘바르실래’를 아낌없이 축복한 뒤, 그의 아들 ‘김함’을 데리고 환궁하였습니다.

6. 그런데 ‘다윗’의 환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40-43 절)

- 1)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과 의논 없이 단독으로 왕의 환궁을 실행하였다고 불평하였습니다. (41 절)
 - ✧ 이는 유다 지파가 왕을 도둑질한 행위라고 비난함!
 - ✧ 이런 비난은 타당한 것일까?

- 2) 이에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저 왕의 종친인 이유로 왕을 모신 것뿐 결코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참고로 ‘다윗’은 결코 ‘사울’처럼 ‘유다’ 지파에게 특별한 대우를 한 적이 없음.

- 3) 이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도 ‘다윗’ 왕과 관련한 충분한 몫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를 한다고 항의하였으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더 강하여 그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 참고로 이런 유다의 강경함은 결국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됨.
 - 곧 유다가 아무리 떳떳하다고 한들 다른 지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공동체의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한 것!
 - 따라서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무턱대고 강경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며 함께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